

양돈 생산비 절감에 총력 경주

- 본회 '94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본회는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맞서 양돈 생산비 절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금년중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본회는 지난 2월 22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9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동용회장 주재로 7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3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94년도 회비 부과 기준(안) 승인 ▲'94년도 자조금 부과 기준(안) 승인 ▲'94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 ▲감사 선임안을 심의·승인했다.

전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사이에 양돈농가는 58만명에서 7만명으로 51만명이 양돈업을 포기했으며, UR타결로 돼지고기 수입개방으로 향후 1~2년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전동용 회장은 「금년부터 냉장돼지고기가 개방되고, 내년부터는 냉동돼지고기마저 쿼터제로 개방돼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실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거듭 어려움을 밝히고, 「개방화 물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중지를 모으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회장은 이어 「양돈업계의 금년 목표를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노영한 전무이사와 박대관 감사로부터 '93년도 협회 사업실적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대의원들은 세입 22억7천9백98만2천원과 세출 19억1천2백30만5천원으로 구성된 '93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94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기준(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돼지 사육규모에 따라 회비와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회비는 400두 미만사육 회원은 5만원이고 그 이상 사육 회원은 100두당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회비는 10월말까지 납부하되 6월 30일까지 회비를 전액 납부하는 지부에 대해서는 납부액의 10%를 지부 운영 보조비로 교부하기로 했다.

자조금도 '93년과 같이 100두 이하를 사육하는 회원은 1만원을 기본부과하고, 100두 이상 사육 회원은 1두당 100원을 추가하여 부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육규모가 250두인 회원은 2만5천원, 500두인 회원은 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자조금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일반회계 2억5천71만3천원, 홍보회계 3억6천7백2만원, 자조금회계 4억5천만원, 제1검정소회계 7억7백5만4천원, 제2검정소회계 4억8천8백42만4천원 등 총 22억6천3백21만1천원으로 구성된 '9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7%, 홍보회계 7.6%, 제2검정소 4.1% 늘어났으나, 제1검정소 회계는 24.4%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7% 줄어든 규모이다. 제1검정소회계 규모가 24.4%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 제1검정소가 검정시설 증축을 위해 정부 보조를 받아 예산이 늘었으나, 금년에는 증축이 없기 때문이다.

정기총회는 금년도 사업을 ▲일반사업 ▲자조금·지도사업 ▲홍보사업 ▲제1검정소사업 ▲제2검정소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으며, '94년도 협회사업목표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양돈생산물 판로확대 ▲돼지고기 수급조절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안정도모 ▲돼지고기 소비촉진 ▲검정사업의 내실화에 두고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특히 금년에 ▲자조금제도 입법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료원료 수입 자유화 ▲생산비 절감 종합대책



수립 ▲가족농 중심의 양돈 모델 개발 ▲돈육가공 신제품 개발 및 유통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돼지고기 직판장 설립 지원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한국형 처리기술 보급과 비료관리법 개정 ▲분뇨처리자금 보조 및 장기저리 융자 ▲돈군건강 진단사업 ▲영농조합법인 설립 지도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양돈전문서적 발간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검정소검정, 농장검정, 일반검정의 내실화 ▲종돈장 위생등급제 ▲사료분석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임기가 만료된 감사선임에 들어가 유진현 김천지부장(신임)과 이현운 감사(유임)를 임기 2년의 감사로 선출했다.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 사임을 표명한 이광우이사 후임에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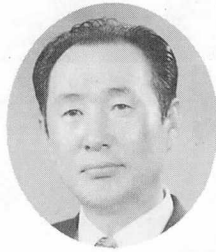
성곤 영천지부장을 이사로 새로 선출했다.

한편, 전동용회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93년도에 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전남도협의회(회장 : 전재명)에 모범도협의회 표창을, 부산·김해지부(지부장 : 김위진)에 최우수 지부상을, 대구지부(지부장 : 조옥봉)와 안양·시흥지부(지부장 : 안용승)에 우수지부상을, 김포지부(지부장 : 홍순길) 등 7개지부에 모범지부상을, 철원지부 박미옥양 등 지부 총무, 여직원 9명에게 모범직원 표창을, 홍보부의 김동성부장과 이종길 차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새로 지부 설립이 승인된 남해지부, 강진지부, 해남지부에 지부설립 승인서를, 새로 지부장으로 선출된 신임 지부장 19명에게 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했다.



김성곤 이사



이현운 감사



유진현 감사

이날 수상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범도협의회 : 전라남도협의회(회장 : 전재명)

▲최우수지부 : 부산·김해지부(지부장 : 김위진)

▲ 우수지부 : 대구지부(지부장 : 조옥봉), 안양·시흥 지부(지부장 : 안용승)

▲모범지부 : 김포지부(지부장 : 홍순길), 충북 영동지부(지부장 : 배상수), 서산·태안지부(지부장 : 이태무), 영암지부(지부장 : 김일중), 영주·영풍지부(지부장 : 황동섭), 울산지부(지부장 : 유재환), 울산시지부(지부장 : 정대용)

▲모범직원 : 박미옥(철원지부), 이덕규(부천지부 총무), 조덕형(강화지부 총무), 최인경(청주·청원지부),

조점순(군산·옥구지부), 오성희(영암지부), 김양희(하동지부), 박명희(창녕지부), 현영미(서남지부)

▲신규설립지부 : 남해지부(지부장 : 조철), 강진지부(지부장 : 노정수), 해남지부(지부장 : 권성래)

▲신임지부장 : 정의남(양산), 황동섭(영주·영풍), 박희석(대전), 오균호(고창), 이원봉(음성), 박승균(부여), 허도구(광양), 김정수(의령), 이영춘(고성), 김준수(마산), 조철(남해), 노정수(강진), 권성래(해남), 김광위(진주), 유재환(울산), 안용승(안양·시흥), 이상길(제천), 조민동(공주), 강충열(포항)

◇바로 잡습니다

1. 지난 1월호 60쪽 “역사에 비취진 간지로는 갑술(甲戌)의 해이다”에서 갑술(甲戌)의 戌(막을 수)는 戌(개술)의 오기였으며, 61쪽의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遇)”에서 遇는 優의 오기였으니 바로 잡습니다.

또한 94쪽 <표6>에서 대만산 돈육 수입비용별 비율합계 57.79%는 32.79%의 오기였으며, 96쪽 우단(右端) 12행에 이어 “수요가 급증하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

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앞으로 구제역지역에서 해제될 시 주 수출국가로 대두될 것이다” 부분이 누락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2. 지난 2월호 47쪽 “백신은 자돈의 경우 6일령과 9~10일령에”에서 “6일령과 9~10일령”은 “5~6주령과 8~10주령”의 오기였으니 바로 잡습니다.